<金鎭甲傳> 硏究

張 裕 昇*

차 례

1. 緖論
2. <金鎭甲傳>의 구조와 내용
3. <金鎭甲傳>의 사실성과 주제의식
4. 小結

1. 緖論

<金鎭甲傳>은 林象鼎(1681-1755)의 『自娛錄』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다. <김진갑전>의 작자 임상정은 본관이 羅州, 자가 德重이다. 18세 되던 1699년 進士試에 급제하여 掌樂院正을 지낸 사실이 확인된다. 현전하는 임상정의 문집은 2종이 있는데, 하나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自娛錄抄』(이하 국도본)이며, 다른 하나는 후손가에 소장된 『自娛錄』(이하 가장본)이다. 국도본은 가장본의 일부를 필사한 것으로 생각되나, 가장본 또한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두 자료의 관계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 중 가장본이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진갑전> 역시 국도본에는 보이지 않고 가장본에만 수록되어 있다.[1] 이 작품의 말미에 보이는

* 성균관대학교 강사

1) 『자오록』과 『자오록초』의 서지 사항 및 수록 시문에 대해서는 拙稿, 「家藏本 『自

"歲甲戌仲春, 錦城林象鼎德重書"라는 기록을 통해,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작자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754년임을 알 수 있다.

<김진갑전>의 立傳 동기는 본디 김진갑이라는 실존 인물의 孝行을 기리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孝子傳'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몇 가지 특이한 면모가 발견되므로, 조선 후기 傳 양식의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이다. <김진갑전>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는 것으로,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김진갑은 全羅道 靈巖 출신으로, 본디 安東金氏 명문가의 후손이다. 그러나 가세가 기울어 병든 부친을 돌볼 길이 없게 되자 상업에 뛰어들어 濟州와 湖南을 오가며 제주의 특산물을 매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客酒業에 종사하는 제주 노파의 딸을 첩으로 맞이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김진갑은 이 재산을 바탕으로 효성을 다해 부모를 봉양하고 형제자매와 우애를 돈독히 하여 친지와 이웃의 칭송을 받았다. 한편, 김진갑은 흉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에게 1년 기한으로 곡식을 빌려주었는데, 이듬해 또다시 흉년이 들자 文券을 불태워 채무를 말소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곡식을 내어 도민을 구휼하였다. 그러자 김진갑의 선행에 감격한 제주도민들이 국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품계를 하사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김진갑전>은 극적 요소가 농후한 가운데 孝行談과 致富談이 交織하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아울러 제주 지역 사회상의 단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김진갑전>의 全文을 단락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진갑전>의 입전 동기와 주제 의식을 살핌으로써 조선 후기 전 양식의 변모 과정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위상과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嫂錄」」(『문헌과해석』 39호, 2007, 문헌과해석사)을 참조.

2. <金鎭甲傳>의 구조와 내용

<김진갑전>의 분량은 약 2,300여 자에 달하는데, 김진갑의 행적에 대한 서술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나머지 절반은 작자의 論贊이다. 전 양식의 일반적인 구조에 비추어 보면 논찬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작자가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작자의 논찬은 <김진갑전>의 앞뒤로 나누어 배치되어 있으며, 김진갑의 행적에 대한 서술은 본론을 이룬다. <김진갑전>의 도입부에는 네 가지 故事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 고사들은 모두 다음에 기록된 김진갑의 행적과 조응하면서 이 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外史氏는 말한다.
>
> 옛적에 江革은 난리를 당하자 어머니를 업고 도망쳐 나무를 하여 봉양하였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요한 물건은 모두 구해 드렸다. 薛包는 동생들과 재산을 나눌 때 황폐한 토지와 부서진 물건을 차지하니, 朱夫子께서 『小學』에 채록하셨다. 馮驩은 孟嘗君을 위하여 薛 땅에 빚을 받으러 갔는데, 빚문서를 태워버림으로써 설 땅의 백성들이 맹상군의 인자함을 떠받들게 하였다. 范純仁은 보리 실은 배를 石延年에게 주어 장례를 치르게 하니, 전대의 역사서에서 그 미덕을 칭송하였다.
>
> 내가 들으니, 남쪽 지방에 金鎭甲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행동과 사적이 매우 훌륭하여 야박한 풍속을 경계할 만하고 옛날의 일보다 나은 점이 있으니, 말세의 사람이 아닌 듯 하다. 속담에 이른바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에 한참 못 미친다'는 말이 어찌 꼭 그렇겠는가?[2]

2) "外史氏曰, 昔江革遭亂, 負其母以逃, 採拾以爲養, 備經艱險, 而便身之物, 莫不畢給. 薛侍中與弟子分異, 田廬取其荒頓者, 器物取其朽弊者, 朱夫子採入於小學書. 馮驩爲孟嘗君, 收債於薛, 焚其券, 令薛民戴孟嘗君之仁. 范堯夫以麥舟付石曼卿, 厄其三葬, 前史稱其美德. 余聞南中有金鎭甲者, 其行與事甚偉, 有足以警澆俗而軼前修者, 殆非衰季之人也. 語所謂古今人不相及者, 豈其然乎?"

첫 번째 고사에 등장하는 江革은 後漢 臨淄 사람으로 字는 次翁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난리가 일어나자 그는 어머니를 업고 피난을 다니며 봉양하였는데, 도적들도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해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고사에 등장하는 薛包는 後漢 汝南 사람으로, 자는 孟嘗이다. 계모에게 효도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 分家하여 家産을 분배할 때 자신은 하찮은 물건만 차지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천거를 받았으며, 훗날 관직이 侍中에 이르렀다. 모두 孝友에 관한 대표적인 고사로서 『小學』에 실려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다음 두 가지의 고사는 타인의 곤란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馮驩은 전국시대 孟嘗君의 食客으로, 맹상군의 명을 받아 빌려준 돈을 거두어들이고자 薛 땅에 갔는데, 갚을 수 있는 자는 기일을 정하여 갚도록 하고, 갚을 수 없는 자는 문서를 불태워 채무를 말소해 주었다. 훗날 맹상군이 곤경에 처하여 설 땅으로 도망하자, 그곳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를 도왔다고 한다. 范純仁은 宋代의 名相 范仲淹의 아들이다. 그는 부친의 명을 받아 姑蘇에 가서 보리 500섬을 거두어 배에 실어 오다가 부친의 친구 石延年을 만났다. 마침 석연년은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범순인은 배에 실린 곡식을 모두 그에게 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네 가지 고사는 서론에서 간략히 살펴 본 <김진갑전>의 줄거리와 조응된다. 강혁의 고사는 김진갑이 부친의 유배지를 오가며 봉양한 사실에 해당하며, 설포의 고사는 김진갑이 형제자매와 가산을 분배하고 동거동락한 사실과 친연성이 있다. 그리고 풍환과 범순인의 고사는 김진갑이 제주도민에게 선행을 베푼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 傳은 다음과 같다.

김진갑은 潮南의 靈岩 사람이다. 고려 말의 名臣 韓山君 金湖의 후손이며 우리 나라에서 좌찬성을 지낸 海陵의 8대손이다. 5세에 『천자문』을 배우는데 '忠孝'라는 글자에 이르자 어렴풋이 기뻐하고 사모하는 뜻이 있었으니, 타고난 자질의 아름다움이 어려서부터 이와 같았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한 뙈기의 땅도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일에 연루되어 嶺南의 玄風縣에 유배되었는데, 객지인지라 먹고 살 방도가 없어 고을 아전의 집 밖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아전들의 도움으로 아침저녁을 해결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아전들이 염증을 내고 귀찮아 하는 기색을 보이니, 부친이 절구 한 수를 아전 집의 기둥에 썼다.

邑號玄風是 고을 이름은 현풍이 맞는데
人心太古非 인심은 태곳적과 다르도다
星堂日欲暮 성당에 해는 저물려 하는데
城下丈夫飢 성 아래의 사내는 굶주리도다

아전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괴이하게 여겼는데, 얼마 뒤 유배객이 지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사죄하였다.[3]

먼저 김진갑의 출신지와 先系에 대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김진갑은 寓庵 金澍(1512-1563)의 후손이며, 左贊成을 지낸 金善慶의 8대손이다. 김진갑의 먼 선조들이 名宦을 지냈다는 사실을 거론한 까닭은, 그가 내력 있는 사대부 가문 출신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달한 조상으로 내세운 인물이 8대조에서 그쳤다는 사실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친 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땅 한 뙈기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김진갑의 집안은 평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처지로 전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다음으로 김진갑의 부친에 대한 일화가 이어진다. 김진갑의 부친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경상도 현풍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전

3) "其傳曰, 金鎭甲者, 湖南之靈岩人. 麗末名臣金鼈岩澍之後, 我朝左贊成善慶八代孫也. 年五歲, 受千字文, 至忠孝字, 優然有欣慕之意, 其天稟之美, 自幼已如此. 家世至貧, 無一畝之田. 其父嘗坐事編配于嶺南之玄風縣, 客土無活計, 僦居于縣之椽房門外, 資吏屬以度朝夕. 久之, 吏輩有厭苦色, 父書一絶句于椽門之柱曰: '邑號玄風是, 人心太古非. 星堂日欲暮, 城下丈夫飢.' 吏輩見之驚怪, 尋知爲謫客之作, 乃愧謝之."

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아전들이 그를 돌보는 일에 염증을 내자 시를 지어 그들을 굴복시켰다. 시는 현풍이라는 고을 이름을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야박한 인심을 탓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진갑의 부친에 대한 일화는 이 작품의 맥락에서 다소 이질적인 면모가 없지 않다. 게다가 김진갑의 행적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부친의 시까지 버젓이 실려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친의 일화와 시는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부친의 名字조차 밝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역시 官人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글은 碑誌類 산문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을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타의 전 작품과 비교해 보더라도 소략하기 그지 없다. 다만 유배된 부친이 아전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를 지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김진갑의 부친이 식자층에 속하며 사대부로서의 신분적 위상과 정체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름도 알 수 없는 김진갑의 부친에 대한 일화와 시가 삽입된 까닭은, 김진갑의 신분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진갑이 어려서 『천자문』을 배웠다는 일화 역시 그가 일찍부터 유교윤리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신분적 성격을 뚜렷이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부친은 시에 능한데다가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는 것을 잘 하였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 문 밖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다. 그의 재주를 부러워하며 곤궁한 처지를 도와주는 자가 날로 많아지니, 초가집을 짓고 가사를 꾸릴 수 있게 되었다. 점차 집안 형편이 나아질 기세가 보였으나 부친이 風痰을 앓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김진갑은 3년 동안 병간호를 하였으나 병은 낫지 않고 힘만 다하였을 뿐이었다.
>
> 얼마 뒤 부친이 사면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병이 심한데다 그곳에 안주하여 움직일 기세가 없었다. 김진갑이 여러 차례 정성스

래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길 떠날 준비를 하느라 천리 길을 여남은 번이나 왕복한 끝에 모시고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온 뒤에는 가난하여 부친의 목숨을 보전할 길이 없었기에 마침내 장사를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수백 금을 빌려서는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갔다.[4]

김진갑의 부친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아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 역시 그의 신분적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김진갑의 부친과 같이 他地에 流入되어 생계가 막막한 몰락 양반의 처지에서는 이미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作文의 수요에 부응하거나 童蒙을 가르친다든지 術數的 지식을 활용한 周易占, 擇日, 卜居 따위로 지역 사회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생계를 꾸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하겠다.

부친의 노력에 힘입어 유배지에서나마 집안 형편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부친이 風痰을 앓게 되자, 김진갑은 3년 동안 효성을 다해 부친의 병수발을 들었다. 그 뒤 부친이 사면을 받아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나, 부친은 이미 유배지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김진갑은 부친을 설득하고 차비를 꾸리기 위해 여러 차례 영암과 현풍을 왕복한 끝에 부친을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부친은 고향을 떠난 지 오래였고, 김진갑은 그런 부친을 돌보느라 고향에 별다른 생활 기반이 남아 있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된 김진갑은 마침내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려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는 호남의 바닷가 고을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데, 진주 조개, 귤, 유자, 말총 등이 모두 기이하고 귀하여 간직할 만한 토산물이었다. 그리하여 이익을 찾아 생계를 도모하는 이들 중에는 살던 곳을 떠나 제주도

4) "父旣能詩, 又善占筮, 推星數, 人之歸向者漸多, 戶外屨常滿. 慕其藝而周其窮者日益多, 得築茅舍, 立産業, 盖駸駸有振發之勢, 而父患風痰, 爲廢疾人. 鎭甲侍藥三年, 病不瘳而力已盡. 旣而父遇赦當還, 而病甚又安土無轉動之勢. 鎭甲積誠諭告, 方便備行具, 千里之途, 往返經紀者, 凡八九次, 卒能奉還. 旣歸而窮無以保父命, 遂下行商販之事, 從人覓債數百金, 携入耽羅."

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진갑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인정과 물성에 익숙해지자 때를 보고 기회를 잡아 여러 가지로 일을 처리하였다. 매달 항상 한두 차례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익을 얻어서는 부친이 먹고 살 밑천으로 삼으니, 부친은 그 덕택에 끼니를 이을 수 있었다.[5]

김진갑은 제주에 들어가 그곳의 정황을 살핀 뒤, 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진주, 귤, 유자, 말총 등 제주의 특산물을 호남으로 가져와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 당시 육지와 제주 사이를 왕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 일에 이르렀다. 순풍을 만나면 하루도 안 되어 당도할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상 조건이 적합해지기를 기다려야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뱃길에 오른 뒤 소요되는 시간만도 수 일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육지와 제주를 안전하게 왕복 가능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진갑은 병든 부친을 봉양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으니, 한 달에 한두 차례라는 김진갑의 왕복 횟수는 당시 사정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편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바닷길의 위험을 무릅쓴 상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달에 한두 차례의 교역으로 얻은 소득이 고향에 머물러 있는 부친을 봉양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제주 특산물의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전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제주와 육지의 교역 규모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8세기 초반 무렵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제주도에 어떤 노파가 있었는데, 술 장사를 하면서 천 금의 재산을 모았다. 김진갑은 늘상 그 노파에게 가서 술을 마셨다. 노파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혼인할 때가 되자 사위를 고르면서 반드시 호남 사람을 구하고

5) "羅與湖南之邊海邑, 隔一溟, 而珠貝橘柚(髟+怱)臺等物, 皆地産之奇貴可居者, 其逐利謀生者, 去其土而仍居耽羅者多. 鎭甲入其地, 熟其人情物性, 能相時投機, 多所料理, 月常一二出入, 得其餘贏, 爲其父餬口之資, 父賴而不絶火."

자 하였다. 한번은 노파가 김진갑에게 말하였다.

"公은 호남 사람이니 내 딸을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김진갑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내 나이 서른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였소. 장가도 들지 못하였는데 먼저 첩부터 들인다면 예의에 맞지 않소.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귀양살이 중인데, 명을 받들기 전에는 허락할 수 없소."

노파가 이로 인해 그만두었다. 김진갑이 부친의 허락을 얻어 돌아오자, 혼인하려는 집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는데 모두 평소에 잘 알고 왕래하던 사람들이라 노파는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딸에게 제비를 뽑아 정하도록 하였다. 모인 사람은 예닐곱 명이었는데, 김진갑이 가장 나중에 제비를 뽑았다가 마침내 그 딸을 얻게 되었다. 김진갑은 노파의 딸에게 장가든 뒤로 밑천이 넉넉해져 재산은 날로 불어나고 토지는 날로 넓어졌다. 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간 뒤로는 마침내 의식 걱정이 없게 되었다.[6]

제주를 오가며 특산물을 교역하는 호남 상인이 상당한 숫자였다면, 제주에서도 이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단락에 등장하는 노파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노파가 술 장사로 천 금의 재산을 축적하였다는 기록은, 널리 알려진 萬德(1739-1812)의 일화를 떠올리게끔 한다. 노파와 만덕 모두 상인을 상대하는 객주업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만덕의 사례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제주에서는 이러한 유의 경제활동이 이른 시기부터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 하다.

노파는 고객이었던 김진갑에게 자신의 딸을 첩으로 들이라고 권하였다. 사윗감을 호남 사람에 한정하였다는 뜻은, 섬 사람이 아닌 육지 사람을

6) "時濟有一老媼, 業賣酒, 起家富千金. 鎭甲尋常就媼飮, 時媼有一女, 當婚擇壻, 必求湖南人. 媼嘗謂鎭甲曰: '公旣湖南人, 寧有意贅於吾乎?' 鎭甲謝曰: '吾年三十, 尙未娶, 未有室而先卜姓, 於禮未允. 且吾親方在謫, 未得命前, 不可許.' 媼爲之止. 及鎭甲得親命而叫, 求婚之家四集, 皆其平日所嘗親熟往來者, 媼難於取舍, 令其女執籌以定之. 會者凡六七人, 鎭甲最後應籌, 遂得其女. 鎭甲旣得女爲歸, 資用頗饒, 貲産日益優, 田土日以廣, 父還鄕以後, 遂無衣食憂."

사위로 맞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김진갑이 미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파가 자신의 딸을 그의 正妻가 아닌 첩으로 들이려 했다는 사실이다. 김진갑 또한 노파의 딸을 첩으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김진갑이 상업에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적 성격은 여전히 사대부의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뒤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노파와 그 딸의 신분은 賤人이 분명하다. 김진갑이 良人 신분의 평범한 상인이었다면 노파가 미혼이었던 그에게 자기 딸을 첩으로 삼으라고 하였을지 의문이다. 노파의 권유는 그녀 역시 김진갑의 신분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노파가 김진갑을 '公'이라고 높여 부르는 모습도 이들의 신분적 관계를 반영하는 장치라고 여겨진다.

김진갑은 병든 부친이 오두막에 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여겨, 따로 넓찍하고 깨끗한 정사 5,6칸을 짓고 부모를 그곳에 살게 하였다. 뜰 가에는 연못을 파고 연어 수백 마리를 길러 병든 부친의 반찬으로 올려, 脾胃을 치료하고 胃腸을 보양할 밑천으로 삼았다. 부친이 몇 해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그 고기를 먹자, 여러 해에 걸친 고질병이 씻은 듯 나았다. 부친이 이 일로 인해 이름을 '立病'으로 고치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효성에 감응한 결과라 하였다.

김진갑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 함께 살았는데, 그제서야 그가 마련한 전답을 셋으로 나누어 하나는 형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는 제주도 여자에게 주었다. 또 자기 아버지를 위해 따로 비옥한 땅을 두고 세입을 풍족하게 하여 평소에 옷가지를 마련하고 노후에 사용할 비용으로 삼았다. 그는 일찍이 아내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살 날이 많지 않으니, 내가 밖에 나갔다 하더라도 자네는 봉양하는데 혹시라도 게을리 하지 말게. 자식된 도리로 어버이 봉양하는데 조금이라도 다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내릴걸세."

그의 아내가 그 말을 따라 정성을 다하고 지극히 공경하니, 시부모는 편안히 그 봉양을 받았다. 두 누이가 과부가 되어 의지할 곳이 없자, 김진갑은

자기 가솔 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한 집에 살았는데, 있거나 없거나 할 것 없이 모든 물건을 함께 하고 격의없이 즐겁게 지내니, 고을의 친척들과 이웃이 모두 집안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실과 일처리하는 재주를 칭찬하였다.[7]

앞 단락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유한 노파의 딸을 첩으로 맞이한 덕택에 김진갑의 재산은 빠르게 불어났다. 김진갑은 이 재산을 바탕으로 부친을 극진히 봉양하고자 새로 집을 지어 편안히 거처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못에 고기를 길러 병에 좋은 음식을 마련하였다. 마침내 부친이 병을 털고 일어나니, 사람들은 모두 그 공을 김진갑의 효성으로 돌렸다.

김진갑의 효성은 아내를 감화시켜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형제자매와 함께 격의없이 한 집에 사는 데까지 이르렀다. 형과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는 사실은 서두에 거론한 설포의 고사와 조응되면서 김진갑의 우애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또한 과부가 된 자매와 함께 살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김진갑이 개인적 차원의 덕목인 孝友를 실천하고, 이를 확대하여 가정의 질서 유지, 즉 '齊家'라는 유교 윤리 질서를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갔음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된 것이다.

한편, 자신이 출타하였을 때의 부모 봉양을 아내에게 각별히 당부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여전히 제주와 호남을 오가며 교역에 종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주에서 데려온 첩에게도 같은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그녀의 물질적 원조가 큰 역할을

7) "鎭甲以病親居斗屋, 非調病之道, 別構精舍五六間, 令軒敞蕭洒, 俾父母居之. 鑿池於庭畔, 養鯽魚數百尾, 以供病饌, 以爲治濕補胃之資. 父居其堂, 食其魚者數年, 而積歲膏肓之症, 廓然良已. 父因改其名曰去病. 聞者皆以爲孝感之致. 鎭甲有一兄同居, 於是三分其所置田, 一以與其兄, 一以爲己分, 一以與濟女, 又爲其父別置膏腴田, 令歲入豊足, 爲平居衣糯之奉, 暮年需用之費, 嘗戒其妻曰: '老父母餘日無多, 吾雖出外, 君奉養毋敢或懈. 凡爲人子, 而奉親之節, 一有不盡, 則必有天殃.' 其妻體其言, 而誠敬備極, 舅姑安其養. 兩妹寡居無所依, 鎭甲率其家眷十餘人, 同處於一庭之內, 有無共之, 和樂無間, 鄕親隣里, 皆歎其家行之美, 幹辦之才焉."

하였기 때문에 그 역할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진갑의 효행을 강조하기 위해 그가 성취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첩의 물질적 원조가 차지하였던 비중을 희석하고, 그 결과 김진갑의 모든 성취가 효행의 결과로 수렴되도록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김진갑은 제주도 여자를 얻어 10년 동안 자녀를 여럿 낳았다. 한번은 노파가 김진갑에게 말하였다.
>
> "이것이 천생연분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천하면 자식도 천한 법이오. 공은 이런 것들을 낳아 어디다 쓰려오? 이제 마땅히 정실을 들여 대를 이을 자식을 구하는 것이 좋겠소."
>
> 그 딸도 그렇게 권하니, 김진갑이 그 말에 감동하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고을 좌수의 딸을 아내로 삼아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고을 사람들이 또 제주 여인의 아름다운 덕을 기특하게 여겼다.[8]

제주 노파와 딸의 신분이 상기되는 단락이다. 이 글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노파와 딸의 신분은 천인이 분명하다. 김진갑에게 정실 부인을 맞이하라고 권유한 이는 다름아닌 첩의 어머니인 노파이며, 첩 또한 정실 부인을 맞이하라고 권유하여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일화는 우선적으로 앞 단락과 마찬가지로 김진갑의 孝友가 齊家로 확장된 결과, 주위 사람들을 감화시켰음을 나타내기 위해 삽입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일화는 한편으로 김진갑이 좌수의 딸을 정실로 맞이함으로써 흔들리던 신분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嫡子의 출생은 그 신분적 성격이 지속되는 길을 열어주는 사건이다. 이처럼 김진갑의 신분적 성격은 <김진갑전> 전편에 걸쳐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진갑은 일찍이 귀중품을 가져가 보리 500여 석을 사서 배에 싣고 제주

8) "鎭甲得濟女, 十年之間, 多産子女, 嫗嘗謂鎭甲曰: '此固天緣, 而母賤子亦賤, 公種此將安用? 今宜娶王室, 求嫡嗣可也.' 其女亦勸之, 鎭甲感其言, 告于親, 聘鄕隣座首女爲妻, 遂産子, 鄕人又奇濟女之德誼."

도로 들어갔다. 마침 제주도에는 흉년이 들어 곡식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김진갑이 배에 실은 것을 모두 빌려 주고는 가을걷이 때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니, 온 섬이 그 덕택에 소생하게 되었다. 가을이 되어 빌려준 것을 거두려 하였으나 빌려간 사람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터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김진갑은 그들의 형편이 곤란할 것이라 헤아리고는 탄식하였다.

"이전에 내가 이 곡식을 빌려주었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곤궁함이 이와 같은데, 내 곡식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곤욕을 치른다면 내 뜻이 아니다. 반드시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고자 한다면 백성들은 필시 원망을 견디다 못해 내 부모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다. 내가 어찌 아까워 하겠는가?"

그리고는 곡식 빌려준 장부를 가져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 다시 거두어 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게다가 100여 석의 곡식을 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휼하니, 제주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 감복하였다.

경오년(1750), 주상께서 온천으로 행차하였는데 제주도 백성 100여 명이 앞다투어 行在所로 와서는 그 일을 상주하였다. 주상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즉시 堂上의 품계를 제수하셨다. 김진갑의 집은 務安縣에 있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이름하여 '孝友軒'이라 하였다. 김진갑은 겸손해 하며 감히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현감 李壽觀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와 '遷種軒'이라 고쳐 주었다.[9]

김진갑은 보리 500석을 배에 싣고 제주로 들어갔다.[10] 그가 나중에, "이전에 내가 이 곡식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 것은

9) "鎭甲嘗挈輕貨糴得牟麥五百餘石, 舡入耽羅, 値羅歲歉, 貸者雲集, 鎭甲傾舟貸給, 指秋粟爲約, 一島爲之蘇息. 及秋, 收其貸, 貸者負旣重, 而歲又荒, 鎭甲度其勢困, 喟然曰: '始吾貸此穀, 固非無故自給者, 然民窮如此, 因吾穀而使斯民受困, 非吾志也. 必欲督徵, 則民必不堪怨, 咎及于父母, 吾何吝哉?' 取貸穀文簿, 就衆中燒之, 以示不復徵, 仍以百餘石分賑島民, 耽羅民大驚服. 歲庚午, 上幸溫泉, 濟民百餘人相率詣行在, 上其事, 上異之, 立授堂上階. 鎭甲家在務安縣, 鄕人名其軒曰孝友, 鎭甲謙不敢當, 地上李公壽觀甫, 親訪其廬, 改以遷種云."

10) 선박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500석은 당시 선박 한 척에 적재 가능한 곡물의 수량이었다. "國穀載運定式, 一船之載, 乃五百石."(『承政院日記』 1732년(영조 8) 12월 24일)

아니었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애초의 의도는 상행위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처음 제주를 오갈 때에 비해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흉년을 만나자 제주도민의 채무를 말소하는 선행을 베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은, 김진갑이 선행을 베푼 직접적인 이유가 '부모에게 허물을 돌릴 것'을 염려한 데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사실이 그 선행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의 의도가 孝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작자가 제주도민을 구휼한 김진갑의 선행 역시 효행으로 수렴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김진갑의 선행에 감격한 제주도민들은 이 일을 국왕에게 아뢰어 그로 하여금 당상관의 품계를 제수받게 하였다. 實職은 아니었지만 김진갑은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현령 李壽觀은 몸소 김진갑의 집을 찾아가 邁種軒이라는 당호를 지어 주었다. '邁種'은 『書經』「大禹謨」의 "힘써 덕을 편다[邁種德]"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씨앗을 뿌리듯 덕을 널리 행한다는 뜻이다.

> 林子는 말한다.
>
> 先王이 남긴 小學의 가르침이 사라진 뒤로 孝悌의 도가 세상에 강구되지 않은 지 오래이다. 지금 효도하고 우애한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은 술과 밥을 드리고 형제간에 사이 좋은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하건만, 어려움을 만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때를 만나서도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자는 드물다.
>
> 김진갑은 초야의 가난한 사람으로 한낱 보잘 것 없는 선비일 뿐이다. 객지를 떠돌면서 품팔이하고 구걸하여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였으니 그 어려운 상황은 江革이 난리 중에 당한 것보다 심하다. 그렇지만 끝내는 가난한 집을 부유한 집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가 봉양하는 것으로는 큰 집과 언못 따위의 거처가 있고 물과 뭍에서 나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좌우에서 그 마음과 뜻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지

난 날의 어려움을 돌아보면 아득하여 마치 시커먼 연못을 떠나 눈 쌓인 산봉우리에 오른 것과 같으니 이는 무엇을 따랐기 때문인가?

무릇 사람이 일을 꾸밀 적에 뜻만 있고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되고 성실함만 있고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역시 안 된다. 요컨대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서 또 오랫동안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세상의 일은 모두 칼로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가 어렵게 떠돌아다닐 때에 걱정한 것은 어버이를 봉양함에 혹시라도 넉넉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두려워한 것은 어버이께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마음씀과 생각이 어찌 잠시라도 어버이를 잊고 經理의 노력을 게을리 하겠는가? 그가 정신을 쏟은 것과 조치를 취한 것은 조물주가 그의 정성에 감동하고 그의 노력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물이 쏟아지면 반드시 도랑이 만들어지고 봄이 화창하면 반드시 꽃이 피는 법이니, 그 이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마련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가 성취한 바를 되새겨보면 옛날의 이른바 '花園老卒'과 같으니, 그 재주와 역량이 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가 소유한 좋은 전답은 한 자 한 치부터가 모두 몸소 마련한 것으로서 적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룬 것이니, 薛氏 형제가 부모가 남겨준 전답을 나눈 것과는 같지 않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도리어 그것을 공공의 물건으로 여겨 자손에게 남기지도 않고 아내에게 넘겨주지도 않고 조금도 차이 없이 형과 똑같이 나누었으니 형제를 한 몸으로 보아 털끝만큼도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하겠는가? 게다가 집사람도 그 덕에 감화되어 형제자매가 함께 살면서도 집안이 조용하여 다른 말이 없었으니, 그가 자기의 사욕을 이겨내고 집안의 모범이 되었던 행동은 아마 讀書人이라 하더라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아! 훌륭하도다.[11]

---

11) "林子曰, 自先王小學之敎廢, 而孝悌之道不講於世久矣. 今之以孝友稱者, 不過酒食供奉而已, 塤篪唱和而已. 盖如是而以爲足焉耳. 至於當艱險之會, 財利之際, 能拚死盡力, 爲人所不能爲之事者, 盖鮮矣. 鎭甲草野貧窮, 一措大耳. 流寄客地, 躬傭保丐貸以養其病父, 其艱厄之狀, 甚於江公亂離中所値, 而畢竟化寒乞爲饒家, 今其奉養者, 居有軒堂池沼之翫, 食有水陸旨甘之具, 朝夕左右, 所以娛其心志者, 無一不備, 回視曩日之困苦, 怳然若去墨池而登雪嶺, 是遵何述哉? 夫人之謀事, 有其志而無其誠, 不可也, 有其誠而功不至, 亦不可也. 要之, 二者俱而又持之以悠久不息, 則天下之事, 始

여기서부터는 다시 論贊에 해당한다. 김진갑의 致富가 전적으로 효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단락에 보이는 '花園老卒'은 馮夢龍(1574-1646)의 『智囊』에 보이는 이야기이다. 宋의 張循王(張俊)이 後園을 거닐다 낮잠을 자고 있는 老卒을 발견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노졸은 대담하게도 외국을 상대로 교역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순왕이 필요한 밑천을 물으니 그는 자그마치 50만 금을 요구하였다. 장순왕이 그의 뜻을 장하게 여겨 허락하니, 노졸은 큰 배를 사서 갖가지 진귀한 물건과 女樂을 싣고 바다로 나갔다. 1년 뒤, 그는 10배가 넘는 이익을 얻어 돌아와서는 예전과 같이 후원을 지켰다.

화원노졸의 致富談은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에게 숨겨진 능력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김진갑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다만 <김진갑전>은 김진갑의 치부 능력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한미한 신분의 인물이 이른바 '讀書人'을 능가하는 윤리 의식과 실천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이러한 사실은 <김진갑전>의 주제의식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 점은 다음 단락에서 잘 드러난다.

> 아! 세상에는 고상하게 의리를 이야기하거나 겉으로만 우애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름답기는 하다. 그러나 정작 재산을 놓고 득실을 따질 때에는 조그만 것까지 다투고 심술을 부리며 불평하다가 끝내는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이욕에 빠져 천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진갑의 풍도에 대해 듣는다면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

皆迎刃矣. 彼其因頓流徙之際, 所憂者親養之或不給, 所恐者親駕之或不返耳. 其處心積慮, 曷嘗一刻忘其親而弛其經理之勞哉? 其精神所注, 施措所運, 造物者固已感其誠而諒其功矣. 水到而渠必成, 春和而花必綻, 其理盖有自然而然者, 此豈一朝一夕之所能辦耶? 迹其所成就, 髣髴乎古所稱花園老卒, 其才具力量之大過人者, 亦可推知矣. 其所置良田美土, 自尺寸以上, 皆其身自經紀, 積少成大, 非如薛氏兄弟之分其父母所遺之田廬者, 自他人言之, 雖以之自私亦可也. 顧乃視爲一公物, 不歸其子孫, 不附其家室, 與其兄平分無些差等, 苟非視同胞爲一體, 無絲髮物我之心者, 何以及此? 況其家人化其德, 兄弟嫉妹同居, 而閨門落然無異言, 其克己刑家之行, 殆非讀書人所可人人而能者, 嗚乎, 其賢矣."

가? 친형제 사이에도 오히려 이러하거늘 하물며 자기의 친척도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저 바다 밖 먼 곳의 사람들은 김진갑에게 '風馬牛不相及'이라고 하겠다. 장부를 살펴보고 빚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곳 백성들이 곤란해질 것을 불쌍히 여겨 500석의 곡식을 헌신짝 버리듯 하였다. 그렇다면 섬의 곤궁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책임을 덜어주고 덕을 보게 한 것은 풍환과 범순인 두 분의 행동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쌓아둔 것을 흩어주고 흩어준 것을 버리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의리를 따르며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鴟夷와 伏波가 천고에 이름을 남긴 까닭이니, 옛말에 이른바 '보답받지 못할 데에 덕을 베푼다'는 것이다. 김진갑은 능히 이렇게 하였으니 그가 사는 곳을 邁德이라 이름하고 현령이 따로 표창한 것도 마땅하다. 세상 사람들은 예로부터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하기 좋아하지만 지금 풍속이 무너진 말세에 먼 지방의 황량한 곳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왔으니, 옛날의 이른바 호걸스러운 선비가 아니겠는가? 사람을 어찌 지체의 높고 낮음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12]

작자는 김진갑이 강혁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친을 봉양하였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주었다는 점에서 설포보다 훌륭하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활용하여 명망을 얻은 풍환과 범순인 보다 어려운 일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단락에는 또다른 두 가지 고사가 등장한다. 鴟夷는 춘추시대 越나라

12) "嗟夫, 世或有高談義理, 浮慕友愛者, 聽其言, 固美矣. 及至臨財産, 較得失, 其所爭分數至些, 而始於忮克不平, 終至鬩墻失歡者, 往往有之, 亦獨何心? 此無他, 利慾汨其中而失其天也. 聞鎭甲之風, 能不泚其額乎? 夫親兄弟同氣, 尙或如此, 況非吾族親骨肉, 而爲所不知何人哉? 彼海外殊域之民, 於鎭甲, 可謂風馬牛不相及, 按簿收債, 於法所當爲, 而乃愍其氓之將困, 損五百石穀如弊屣, 然使環海疲民, 得以弛其責, 而飽其德. 比諸馮范兩公之所辦得, 豈不尤難矣乎? 夫積而能散, 散而能介, 視財物無所吝, 惟義所在, 而不以利爲利, 乃鴟夷伏波之垂名千古, 而古所謂垂德於不報之地者, 鎭甲能以之. 宜其居之名以邁德, 而地主之別爲表章者也. 世之喜言無好人三字者, 自古而然, 而今於末俗渝薄之際, 窮鄕荒貿之中, 乃有此等人, 豈古所稱豪傑之士非耶, 而人可以地處高下論斷哉?"

의 재상 范蠡를 말한다. 범려는 吳나라를 멸망시킨 뒤 성명을 바꾸고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가 나누어주기를 세 차례나 하였다. 伏波는 後漢의 장군 馬援을 가리키는데, 그는 젊은 시절 목축으로 큰 재산을 모았으나 형제와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김진갑이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않고 제주도민의 채무를 말소해 준 일을 비유함으로써, 본보기가 될 만한 행적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단락의 말미에서 작자는 세상 사람들이 예로부터 '좋은 사람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김진갑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말은 잘못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서두에서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에 한참 못 미친다'는 속담을 부정한 사실과 상통하는데, 이는 작자가 무조건적으로 '古'를 추앙하고 '今'을 폄하하는 상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3] 작자는 김진갑이 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 김진갑은 먼 지방의 한미한 사람으로 애당초 벼슬에 나아갈 생각이 없었고, 또 믿고 기댈 데도 없었다. 단지 효도와 우애를 실천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 구중궁궐에까지 이름이 알려져 하루아침에 布衣에서 3품의 품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영예로움이 어찌 조그마한 善이나 실제의 일도 없으면서 그저 호랑이를 잡아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로 帖文을 받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같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내가 보건대 지금 세상에서 帖文을 얻은 사람들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앞장 서 도와준다면 實職을 받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다. 하지만 김진갑이 얻은 것은 影職이었고, 僉知中樞府事라는 實銜조차 받지 못하였으니, 이 어찌 정권을 잡은 자가 소스라칠 일이 아니겠는가?
>
> 내가 들자하니, 김진갑은 젊어서 배우지 못해 글재주가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때문에 보잘 것 없다고 여기지만, 사람의 어짊과 그렇지 않음이

13) 이러한 태도는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 "嗟乎, 世常謂世降人心惡. 今以此事觀之, 其諺人也亦多矣. 天人心何嘗惡, 顧係乎在上者所導耳."(林象鼎, <隨筆錄> 32則, 『白嫗錄抄』)

어찌 글재주가 있고 없고에 달려 있겠는가? 김진갑과 같은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발탁하여 온갖 실무를 맡겨 본다면 훗날의 성취에 볼만한 것이 없을 줄 어찌 알겠는가? 한스럽게도 내게는 그를 끌어줄 힘이 없으니, 일단 그의 행적을 위와 같이 써서 項斯의 이야기[14]를 하는 뜻을 담고 아울러 당국자에게 알린다.

甲戌年(1754) 2월, 錦城 林象鼎 德重이 쓰다.[15]

김진갑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남다른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댓가로 얻은 것이 影職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개탄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을 실지로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영직이란 임시로 職名을 빌리는 것일 뿐,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랑이를 잡아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로 帖文을 받는 자"란, 당시 虎患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호랑이를 잡는 것을 軍功으로 간주하여 품계를 주었던 사실을 말한다. 작자는 이러한 사람들조차 권세가의 도움을 얻으면 實職을 받을 수 있는데, 김진갑과 같이 탁월한 능력과 행실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름뿐인 관직을 받았을 뿐이라며 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글재주가 없고 지체가 낮더라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관직에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갑을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그의 효행이나 선행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효행이나 선행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며 윤리

14) 項斯는 唐 나라 江南 사람이다. 楊敬之라는 인물이 그의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여, "평소 남의 장점을 감추지 못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항사의 이야기를 한다[平生不解藏人善, 到處相逢說項斯]"는 시를 지었다.

15) "鎭甲以遐鄕冷迹, 初無進取之志, 又乏攀附之勢, 特以孝友實行, 輿氓公誦, 名徹於九重, 一日由白徒致身於三品階, 其榮耀, 豈與世之無片善無實事而虛取捉虎活人帖文者比而同之哉? 然余觀今世得帖文者, 苟有勢力者爲之先, 則取實職如反手, 而鎭甲所得, 乃影職, 而尙未霑僉樞實銜, 此豈非操政柄者所可瞿然者耶? 余聞鎭甲少失學無文, 人或以此少之, 然人之賢否, 豈係文與不文耶? 如鎭甲者, 在位者誠能拔而試之百執事, 則後來成就, 安知無可觀者乎? 恨余無推輓之力, 姑叙其事行如右, 以寓說項斯之之意, 仍以諗當路者云. 歲甲戌仲春, 錦城林象鼎德重書."

적 본보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작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왕의 표창을 받은 데 만족하지 않고 굳이 실직에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이유는 무엇일까? 전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는 김진갑의 윤리적 면모와 아울러 경제 활동을 통해 보여준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 양식의 입전동기는 본보기가 될 만한 인물의 행적이 민멸될 것을 우려하여 후세에 전하는데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이른바 '傳信'의 기능인데, <김진갑전> 역시 이러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후세에 전하겠다는 상투적인 언급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項斯의 이야기'를 거론한 것을 보면, 작자는 김진갑의 행적을 후세에 전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그러한 인물의 존재를 당대에 알리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글의 창작시기는 작자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754년이다. 김진갑의 행적은 1751년의 일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작자가 이 글을 지을 당시까지 김진갑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작자가 <김진갑전>을 창작함으로써 김진갑과 같은 인물들이 당대에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김진갑전>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후세의 독자들을 향한 것이라기 보다 당대의 독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겠다.

3. <金鎭甲傳>의 사실성과 주제의식

<김진갑전>의 직접적인 입전동기는 한마디로 孝行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말하였듯이 김진갑의 모든 행위는 효행으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孝行에도 여러 층위가 있으며,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가의식 및 당대 사회상과 관련지어 볼때 그 주제의식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김진갑전>에 작가의 의도에 의한 허구적 요소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진갑전>의 주조는 효행담이지만 치부담이 또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데, 치부담 계열의 野談은 대개 허구적이다. <김진갑전>에 보이는 제주 여인과의 혼인 과정, 제주도민의 구휼에 얽힌 사건은 극적인 요소가 농후하다는 면에서 오히려 사실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가 없지 않다. 현재 김진갑에 대한 다른 문인의 기록이나 그가 포상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김진갑전>의 사실성을 증명할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양식의 창작에 대한 작자의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김진갑전>에 허구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그 내용은 대부분 작자의 견문에 바탕한 것으로 추측된다. 작자의 절친한 벗이었던 趙龜命이 작자가 지은 또다른 전 작품인 <박효랑전>의 말미에 부친 論贊에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趙子(필자주: 趙龜命)는 말한다.
>
> 세상에 효랑을 높이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경여를 높이는 자는 또 저렇게 말한다. 역사가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만약 그저 짐작하여 취사선택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乳非城內'이다. 아! 예로부터 역사에 전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았을 뿐이니 어찌 다시 죄다 믿을 수 있겠는가? 단지 대략을 징험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처음에 林子(필자주: 林象鼎)가 이 傳을 지을 때에 일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
> "그냥 짓게. 가령 효랑이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야기를 지어내어 교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네."
>
> 하니, 비로소 글을 지었다.[16]

16) "趙子曰: 世之右孝娘者, 所言如此, 爲慶餘者, 又所言如此, 史何從所信哉? 若徒斟酌取舍之, 乃佛氏所謂乳非城內. 嗟夫, 自古以史傳者盖多此類耳, 曷復盡信, 顧大體可徵, 則有焉, 始林子立是傳也, 患事之不眞, 余謂第作之, 假使孝娘爲亡是烏有, 顧不害寓言設敎. 於是始屬藁."

임상정은 박효랑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 입전할 생각을 품었으나, 그 일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선뜻 글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乳非城內'는 『金剛經』 疏에 보이는데, 우유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을 늘이려고 물을 붓다 보니 처음 성안에 있을 때는 농도가 짙었던 우유가 갈수록 희석된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말이다. 췌언을 덧붙여 본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비유한다. 임상정이 <박효랑전>을 짓기에 앞서 그 진실성을 의심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傳의 고유한 창작 의도, 즉 正史의 闕漏를 보완한다는 관념에 충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전 양식을 비롯하여 임상정이 남긴 서사체 산문의 창작 동기는, 우선 史學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에서 찾아야 할 듯 하다. 임상정은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을 근간으로 75권 35책의 『林氏史統』을 남겼다. 그의 從弟인 老村 林象德(1683-1719)이 편찬한 『東史會綱』과 더불어 사학에 대한 이 가문의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다. 임상정에게 있어서 전 양식의 창작은 역사 서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김진갑전>에 따르면, 김진갑에게 賞典이 내려진 것은 경오년(1750년, 영조 26)의 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영조는 이 해 瘙瀼症을 치료하기 위해 溫幸에 나섰는데, 9월 12일 한양을 출발하여 같은 달 28일 환궁하였다. 이 기간에 있었던 일은 규장각 소장의 『溫幸日記』(奎12803)에 상세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진갑에 대한 언급이나 제주도민의 상주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온행일기』의 기록이 12일부터 17일까지에 그치고 있으므로, 제주도민의 상주가 17일 이후에 있었다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진갑이라는 이름이나 제주도민의 상주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일을 허구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수관의 방문에 대한 기록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믿어도 좋을 듯 하다. 『務安郡誌』에 따르면 이수관은 1751년 5월에 부임하여 이듬해 10월에 임기를 마쳤으니, 이수관의 방문은 김진갑이 상전을 받은 이듬해에 있었던 일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과 작자의 창작 태도로 미루어 보건대, 일부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김진갑전>이 의도된 허구적 창작물일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듯 하다. 더구나 김진갑이 살았다던 무안현은 나주임씨의 세거지 중 한 곳으로, 이 점 역시 작자가 견문에 의거하여 김진갑을 입전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준다.

<김진갑전>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작자에 의해 창작된 일련의 傳記類 산문의 창작동기와 입전대상, 주제의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상정은 서사체를 적극 활용하여 傳의 고유한 창작 의도에 입각한 서사체 산문을 여러 편 남겼다. 임상정의 『자오록』에 傳 작품은 <박효랑전>과 <김진갑전> 2편에 불과하나, <南原公子手寫琴譜序> 및 <記西關問答解嘲> 역시 서사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흥미와 감동을 배가한 글이다. <남원공자수사금보서>는 조선 후기의 이름난 樂師였던 漁隱 金聖基와 宗室 南原君의 우정과 예술 세계를 다룬 글이며, <기서관문답해조>는 작자가 재취를 얻게 된 과정을 기술한 글이다. <隨筆錄>에도 서사 구조를 활용한 글이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수필록>의 서사체 산문은 대부분 짧은 필치로 인물의 일화를 기록한 글인데, <박효랑전>과 함께 <김진갑전>의 입전동기 및 대상과 유사한 면모가 많으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박효랑전>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수필록>의 일화만 예시한다.

<수필록> 7칙은 찾아온 거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친 일화이다. 그는 麻浦에 사는 宋恢祚로 당시 12세였는데, 모친을 장례지내고 부친을 병구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구걸을 하면서도 배움에 뜻을 버리지 않아 『論語』를 들고 임상정을 찾아온 것이었다. 임상정은 그를 먹여주고 약간의 쌀을 주면서 다시 책을 가지고 들르라고 당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수필록> 21칙은 眉湖 근처에 사는 武人 禹僉使의 일화이다. 그는 글을 지을 줄도 모르고 그저 편지나 쓰고 吏文이나 알 따름이었다. 이에 몇몇 벗과 함께 암자에 올라가 글을 읽기로 하였다. 나무를 해다 밥을 지어 먹으며 글을 읽는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벗들은 모두 포기하고 가버렸다.

그러나 우첨사는 석달 동안 남아 『논어』를 다 읽고 내려왔기에 그나마 이름이라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수필록> 25칙은 交河 사람 安楫의 일화이다. 그는 무과에 급제하여 三水郡守를 지냈는데, 성품이 지나치게 강직하였다. 형의 집에서 이익을 보려고 두 가지 말[斗]을 쓰는 것을 보고는 곧장 부수어버렸고, 첨사로 있던 벗이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먹지 않자 장수의 자질이 없다며 곧바로 절교를 선언하였다. 제주판관을 지낼 때에는 목사가 탐학을 자행하자 칼을 뽑아들고 목사를 죽이려 하였으며, 아끼던 노비가 진상하는 인삼을 훔치자 곧바로 군법에 따라 참수하였다는 등의 이야기이다.

<수필록> 30칙은 承旨 朴致道의 일화이다. 그는 먼 지방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그의 부친은 납속을 하고 공조참의의 직첩을 받았다. 판서 申晟이 그를 창피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에게 부친이 어느 해 과거에 급제하였는지 물었다. 그러나 박치도가 낯빛을 바꾸지 않은 채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히니, 신정이 그날로 교분을 맺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밖에도 <수필록>에는 유사한 성격의 일화가 많으나, 이상의 것만 예시한다.

<수필록>에 등장하는 인간군상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우선 다루는 대상이 몰락양반, 武人, 平民 등 출신이 한미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성취가 지니는 사회적 파급력이나 중요성이 여타 문인들의 입전 인물에 비해 크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단지 삶의 자세가 유교윤리적 규범에 투철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입전되었으며, 신분이 한미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들의 행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임상정은 <김진갑전>의 논찬에서, 겉으로 의리와 도덕을 말하지만 이익을 다투고 인정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다름아닌 士大夫 계층의 허위를 지적한 말이다. 그는 당시 사대부 계층이 주력하는 학문이 본질을 망각하고 허위와 가식에 치우쳤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래 三代의 학문은 실천 가능한 君臣父子의 윤리와 正心修身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으나 宋代 性理學이 출현하면서부터 학문이 근본을 상실하여 신기한 것만 추구하고 지엽적인 데로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17] 임상정은 기본적인 윤리조차 저버린 채 이러한 학문에 종사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김진갑전>의 창작은 이와 같은 작자의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자는 신분적으로 한미한 이들로부터 역경을 만나서도 지키는 바를 변치않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발견하고, 이들을 통해 사대부 계층에서 상실된 진실성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자 스스로 입전 대상을 평가함에 있어 계급 의식에 입각한 가치관을 완전히 탈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예컨대 <김진갑전>의 서두에서 김진갑이 조선 초기의 名宦인 金澍와 金善慶의 후손임을 밝힌 점, 부친이 뛰어난 詩才를 지닌 사실을 언급한 점, 김진갑 역시 어려서 천자문을 배우고, 일찍부터 유교윤리적 세례를 받았다는 점 등은 그가 여전히 계급의식을 탈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되는데, <박효랑전>에서는 박효랑이 영의정 文獻公 朴元亨의 후손이며 忠義衛 朴壽華의 딸임을 서두에 밝혔고, <수필록> 7칙에는, '그의 고조가 수안군수를 지냈다 하니 양반의 자손인 듯 하다'[18]라는 기록을 말미에 덧붙였다. 단순히 家系를 밝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입전 대상의 윤리의식이 어디서 연원한 것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사대부 계층의 허위를 지적하면서도 사대부의 계급적 성격이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의 회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 하다.[19] 비록 임상정이 현실과 괴리된 유자의 학문이 지니는 문제

17) "三代學問, 專就身上做, 所講不外君臣父子之倫, 正心修身之法, 性與天道, 固聖人之所稀言. 自濂溪太極圖出, 而宋儒務爲窮理之學, 其言漸多枝葉, 其法漸入新奇, 至朱夫子而聖人之餘蘊畢發, 儒者之能事畢見. 然朱子亦以此取支離之譏, 流而至於我國, 牛栗兩先生理氣之辨四七之爭, 往復累百言, 若此者不可盡數. 近世有拙修齋者, 專用一生心力爲鬼, 索工夫於身心切近處, 却不甚喫緊, 余嘗謂拙修齋可謂以身殉學, 凡此皆世代漸下, 風氣習尙之使然也."(<수필록> 18칙)

18) "渠之高祖爲遂安郡守云, 似是兩班子."(<수필록> 7칙)

19) 임상정은 어떤 이가 송시열을 거론하며 유자의 폐단을 지적하고, 국가의 운영에

점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재래의 신분 질서에 따른 계층간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신념에 동요를 일으키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저자 스스로 계급 의식을 탈각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고 하겠다.

4. 小結

임상정의 <김진갑전>은 호남과 제주를 오가며 상업에 종사한 김진갑이라는 실존 인물의 효행과 선행을 기리기 위해 창작된 글이다. 전통적인 孝子傳과 입전 동기를 공유하면서도 김진갑의 치부담을 서술함에 극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제주 지역 사회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가치가 있다.

<김진갑전>의 직접적인 입전 동기는 김진갑의 孝行이며, 드러나지 않은 인물의 행적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正史를 보완한다는 傳 양식의 고유한 창작 의도에 충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진갑전>은 여러 모로 조선 후기 전 양식의 변모 양상의 의의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商人을 입전하였다는 점에서 <김진갑전>은 입전 인물의 다양화라는 조선 후기 전 양식의 특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으나, 그의 신분적 정체성은 여전히 사대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사대부로서의 그의 신분적 성격은 이야기의 전개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다. 둘째, 흥미로운 致富談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상을 적실히 반영하면서도 극적 요소를 중시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김진갑전>의 치부담은 어디까

는 오로지 지모와 재능이 있는 선비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상정은 유자의 역할에 대한 재래의 입장을 고수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座客有曰, 吾平生常謂儒者無益於國家, 今日世道如此壞陷, 只是一箇尤齋所爲, 使明齋出世, 則亦必顚沛而止, 故而今治國當用智謀材能之士, 專務富國强兵可也. 余對曰, 儒者之有弊, 盖坐人不善做儒, 豈儒者之罪哉. 儒者如飮食然, 人之所賴而生者也.…(後略)"(<수필록> 14칙)

지나 효행의 일환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극적 요소 또한 전통적인 운명론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관념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김진갑전>은 한미한 신분을 지녔음에도 유교윤리적 규범에 투철한 인물에게서 진정한 인간상을 발견하고, 이들을 통해 士大夫 계층의 허위의식을 반성하고, 상실된 진실성을 되찾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다. 다만 저자가 갈망하였던 유교 윤리 질서의 확립이 여전히 계급 의식에 입각한 것이며, 한미한 신분의 인물들에게 잠재된 능력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 핵심어: 金鎭甲, 林象鼎, 제주도, 孝子傳, 商人傳

<Abstract>

A study on the biography of Kim Jingab

Jang Yu-sung

The biography of Kim Jingab(金鎭甲), written by Lim Sangjeong(林象鼎) was intended to admire the filial piety and the good conduct of Kim Jingab. He was a real person who was engaged in commercial business between Honam(湖南) and Jeju(濟州). The biography had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typical biography of a faithful son, but it emphasized the process how he became wealth, through which it showed a social aspect of Jeju.

While admiring a person who was in humble status but had a thorough belief in the confucian norm, the biography of Kim Jingab presented the ideal of personality. It reflected on the falsehood of the gentry, and tried to retrieve the authenticity of the confucian ideal. But the trial was still based on the sense of class distinction and there was no fundamental introspection about the hierarchical system. That was still remained as a limitation.

• Key words : Kim Jingab, Lim Sangjeong, Honam, Jeju